



● **우리들의 징성 (11. 04 ~ 11. 10)**

연중 제32주일 헌금	7,826,100 원	감사헌금	강지선	추원교	익 명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3,098,650 원		김종숙	홍현승	익 명
교 무 금	9,815,000 원				

**금주 교무금 내신 분**

강연수	김동화	김윤아	박상희	손현선	용호중	이숙자	임진선	정원석	최병철
강희광	김명옥	김인석	박성자	신복식	원복순	이승한	장정학	정종혁	최상목
고범석	김미자	김재국	박성호	신애란	유정현	이영자	전부자	정진용	최종호
고재인	김민섭	김정옥	박원희	신혜주	윤경례	이주현	전우리	정혜란	표순애
곽은기	김세중	김치두	박해자	안대용	윤경한	이창봉	전정미	조영애	홍민균
권태희	김수아	김혜숙	방미숙	안용수	윤문수	이혜정	전필원	조완행	홍순경
김귀옥	김수연	나병국	백 현	양길용	윤선옥	이희성	정다경	조창열	홍효순
김기동	김수진	남궁걸	서명자	양유리	이기월	임경희	정애경	차지연	황인규
김기옥	김유진	노금자	석기원	엄현동	이상학	임명순	정우경	최병권	

**추진도시 : 『연옥실화』**

우리 가톨릭교회는 11월을 ‘위령성월’로 정하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령성월을 지내면서, 우리 흑석동성당 교우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연옥실화(Le Purgatoire)』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을 저술하신 분은 막심 뤼상(Maxime Puissant) 신부님으로, 연옥(煉獄)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우리 신앙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영생(永生)을 잘 준비하고, 잠벌(暫罰)을 치르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책 소개’와 ‘북리뷰’를 읽어보시고, 많은 관심 갖고 일독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톨릭출판사 책 소개]**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낯설지 않다. 교리에서도 가르치며, 미사에서도, 우리가 매일 바치는 묵주기도에서도 계속 언급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묵주기도를 한 단 바칠 때마다 마지막에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고 ‘구원을 비는 기도’를 바친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과연 연옥이란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잘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다른 종파에서는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어려워하곤 한다. 그렇다면 연옥은 어떤 곳이며, 누가 가는 곳이기에 우리는 미사 때도, 기도할 때도 연옥 영혼을 기억하는가?

이 책 『연옥실화』는 교회사에 널리 알려진 성인과 성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역사 속 인물들이 직·간접적으로 겪은 연옥 체험을 정리한 책이다. ‘내세는 있는가?’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해서 연옥의 존재, 연옥에서 받는 벌의 종류, 연옥 영혼이 느끼는 기쁨, 연옥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등 우리가 연옥에 대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속속들이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생생한 체험을 전한다.

**[북리뷰]**

지금까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나는 수많은 죽음을 접했다. 가족, 동기의 부모님, 교구 신부님의 부모님, 아는 신자 부모님의 죽음, 뉴스 등을 통해 접한 죽음 등을 멀리서 때로는 무척 가깝게 겪었다. 그렇게 죽음을 한 번 두 번 겪어내면서 ‘죽음은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삶은 불확실하다’는 생각은 삶을 불안하게도 만들지만, 나를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들기도 한다. 곧 죽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내 주위의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으로 말이다 .

가톨릭의 아름다운 전통 중 하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산 이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초대한다(천상 교회의 성인 성녀들도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 다시 말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옥에서 속히 하느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은 가톨릭교회가 죽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게 되었을 것이다. 교회는 밤낮없이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진실한 신자는 모든 죽은 이, 특히 가장 사랑 하는 이를 언제나 기억한다. 일생을 그들과 함께 살며 매일의 노고와 걱정들을 그들을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고, 또 선업이나 자선을 죽은 이를 위하여 스스로 실천하며 남에게도 권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죽은 이는 참으로 복되다.”(287)

자신의 무덤 위에 올려질 수백, 수천 개의 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도’와 ‘미사’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 sanmol883 님

